





우리 소리로
한류의 밑거름이 된
명창

박귀희

향사는 끝내 남들이 감내하지 못할 두 가지 커다란 기념비적 유물을 국악사에 세웠다. 하나는 지극히 한국적이고도 수려하기 그지없는 가얏고 병창의 수려한 누각이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구한 역사를 이어갈 민속음악의 요람 국악예술학교의 위용이 그것이다.

한명희, 《향사 박귀희 선생 10주기 추모 논문집》에서



- 1921 2월 6일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하판리에서 출생
- 1929 대구공립보통학교 입학
- 1931 재학 중 국악 시작
- 1934 대동가극단 입단
- 1935 대구공립학교 졸업
- 1955 한국민속예술학원 설립
- 1960 국악예술학교 설립
- 1961 일본 동경에 한국무악학원 개설
- 1968 12월 21일 중요 무형문화재(가야금 병창) 제23호 지정
- 1971 일본 10개 도시 순회공연
- 1972 뮌헨올림픽 순회공연
- 1984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로 개명
- 1989 윤당여관 매각해 새 학교 건물 마련
- 1989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 1993 7월 14일 73세로 작고



관소리로 삶을 개척하고 가야금 병창으로 우리나라 첫 인간문화재가 된 향사 박귀희. 위기의 국악을 살리고 큰 족적을 남긴 여성 국악인이자 예능인이며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다. 사재를 털어 국악학교를 세웠고, 죽을 땀 남은 훈까지도 국악과 후진을 위해 국악학교에 기부하고 떠난 진정한 교육가였다.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소리를 배우기 위해 스승을 찾아 산속 사찰, 멀리 전라도 시골마을에 이르기까지 다니지 않은 곳이 없었다. 영호남을 넘나들며 동편제와 서편제를 두루 섭렵했다. 그렇게 배우고 익힌 소리로 명창의 반열에 올랐다.

너무나 욕심이 많았던 국악인이었다. 광복 뒤엔 국악 모임을 만들어 국악 알리기에 나섰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으나 좌절하지 않았다.



박귀희

그러나 1960년대 들어 영화와 TV가 등장하고 서구 음악이 물밀 듯 쏟아지면서 국악은 힘을 잃어 갔다. 박귀희는 당돌하게 소리 세계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겁없이 눈을 나라 밖으로 돌려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그는 해외에 국악, 관소리와 가야금을 알리는 전령사였고 선각자였다.

그렇게 시작한 일본 진출이었고 온갖 어려움을 안고 진행한 유럽과 미국 공연이었다. 무대는 계속 넓어졌다. 우리 국악과 소리의 맥을 잇기 위한 제자 양성에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기꺼이 재산을 내놓고 예술학교를 세웠다. 그 제자들이 지금 세계를 누비며 국악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구촌에 부는 한류 바람의 시작은 어쩌면 이미 반세기 전에 그가 뿌린 씨앗이 있었기에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앞서 누구도 가지 않았던 국악의 해외 보급과 전승 노력은 21세기 한류 준비를 위한 마중물이었다.

가야금 병창으로 첫 인간문화재 되다

박귀희의 운명은 1931년 보통학교 4학년 시절 갈렸다. 총명한 딸을 인물로 만들겠다고 대구의

보통학교에까지 보냈던 어머니의 계획은 틀어졌다. 학교와 대구 대봉동의 외갓집을 오가는 길에 있던 국악전수소 때문이었다.

담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를 귀동냥으로 듣고 따라하다 들켜 스승 앞에서 불렀던 단가 한 자락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그래 쓰겠다. 너 소리 배워라.” 스승의 한마디였다. 어린 소녀를 명창의 길로, 인간문화재의 길로 이끈 말이었다. 특히 그해 외숙모와 대구극장에서 본 공연에서 당대 가야금 병창의 명창 오태석이 부른 심청가의 한 대목은 훗날 그를 가야금 병창으로 이끄는 계기가 됐다.

본격적인 국악 인생은 1935년 학교 졸업 후 대동가극단에 입단하면서 시작됐다. 입단 며칠 만에 첫 무대에 올라 부른 단가로 ‘소녀 명창’이란 명성을 얻었다. 그때부터 스승을 찾아 배우는 토막소리 공부의 긴 여정이 시작됐다. 그러나 소리를 얻는 득음과 명창의 길은 멀고 어려웠다.

“예(藝)에 산다는 길은 험난했다. 더욱이 예를 도(道)로 터득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 중지에까지 가보고 싶었다.” 훗날 그는 예로써 도의 경지에 오르려 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대구 화원 용연사 암자에서 박귀희는 스승 조학진의 가르침을 따라 판소리 적벽가 100일 공부에 들어갔다. 당시 국악계에서 말하던 공부 방식인 도야(100일 기도하듯 절이나 암자에서 스승을 모시고 소리 터득을 하는 공부)였다. 목과 몸이 부어 탈진했고 홍수로 죽을 뻔한 위기도 맞았다. 이어 1939년 전남 담양 지실마을에서, 1940년 쌍계사에서 세 번째 100일 공부를 했다. 단가 하나 배워 하루 종일 복채로 바위를 두드렸고 틀리면 여지없이 회초리 세례였다.

명창을 향한 연습은 밤낮이 없었고 스승을 찾는 순례는 계속됐다. 적벽가, 흥보가, 심청가, 춘향가, 수궁가를 차례로 익혔다.

어린 시절 받은 가야금 병창의 감동으로 강태홍에게 가야금도 배웠다. 그리고 1941년부터 3년을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어린 시절 무대에서 봤던 가야금 병창의 명창 오태석에게 직접 가야금 병창을 사사했다. 얼마나 가야금을 뜯었는지 지문이 없어졌다.

끊임없는 노력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당대 내로라하는 수많은 명인 명창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판소리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 판소리를 보통 전라도 섬진강을 중심으로 동, 서로 나눠 동편제와 서편제로 구분했다. 또 동·서편을 합했다는 보성소리 즉 강산제도 있었다. 여기에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를 대표하는 중고제가 생겼다. 유파로는 그는



동편제에 속했지만 동·서편제를 넘나들었고 스승도 그러했다. 계파는 중요치 않았다. 판소리가 전라도에서 생겨났기에 유명한 명창 가운데는 전라도 출신이 많았다. 판소리 사설도 전라도 사투리가 많아서 다른 지방에선 배우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런 판소리 풍토에 도전, 다른 명창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당시 영남 출신 여류 명창엔 이화중선(부산) 박녹주(선산) 김초향(대구) 김향란(포항) 등이 있었다. 그는 영호남 색을 뛰어넘었다. 배움에 나이도 없었다. 나이도 잊고 매일 목을 풀었다. “70이 넘은 요즘도 나는 하루에 두서너 시간은 목을 풀어야 잠이 온다.” 그의 자서전에 나오는 말이다.



1962년 파리 공연 모습

다. 옛 스승의 지론을 늘 기억했다. ‘하루만 목을 놓아 두면 목에 풀이 난다.’ 그리하여 1942년 불과 21세 젊은 나이에 판소리 다섯마당인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 춘향가에다 가야금 병창까지 섭렵하게 되었다.

세상은 그를 모른 채하지 않았다. 국악 입문 37년 만인 1968년 가야금 병창으로 첫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하여 예우했다. 예인으로서 최고에 올랐지만 공은 두 스승께 돌렸다. “가야금 병창으로 인간문화재가 됐던 것은 강태홍, 오태석 선생님 두 분 공덕이 컸다.”

가야금 명인으로 이름을 날리던 시절, ‘가야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곤 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가 태어나 자란 칠곡은 옛날 대가야의 악사 우륵이 가실왕과 함께 가야금을 만든 고려 성열현 금곡과는 낙동강으로 이어진 곳이었다. 1,500년 전 우륵의 피가 낙동강 물결을 따라 그에게 전해졌음이 분명했다.

서구 물결 거슬러 우리 소리 지키다

완강한 반대를 뿌리치고 당시 광대처럼 천하게 취급받던 국악과 소리를 몰래 시작했으니, 부모에게 그는 버린 자식이었다. 급기야 어머니 성을 따라 오계화라는 새로운 호적 이름을 가졌다. 그러나 평생의 이름은 가극단 입단 때 지은 박귀희였다.

이처럼 그의 국악 인생은 환영받지 못한 출발이었다. 그러나 끝은 명창으로 가야금 병창 첫 인간문화재 지정이란 최고 반열의 등극과 찬사였다. 또한 여러 차례 창극과 여성국극에 출연해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몇 편의 영화에도 출연해 큰 족적을 남겼다. 때문에 근대 판소리를

정리한 조선 판소리 이론가인 신재효가 명창의 네 가지 자격 요건으로 제시한 인물치레(외모), 사설치레(판소리의 사설), 득음(음악적 성음), 너름새(연기력) 중 너름새를 스스로 가장 자신 있는 요건으로 들기도 했다.

그의 60년 평생은 국악과의 동행이었다. 외딴 인생은 20세기에 밀려든 서양 음악의 거센 물결에 떠밀려 활기를 잃은 우리 국악계엔 오히려 한 가닥 빛이었다. 8·15광복, 6·25전쟁으로 민족 음악은 먹구름에 휩싸인 상태였다. 미군과 함께 서구 음악은 홍수처럼 밀려왔다.

그는 더욱 국악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국악단체 조직과 참여, 국악학원 운영과 국악학교 설립, 공연과 대중매체 출연 등 끝없는 국악 활동은 서구 음악의 홍수 속에 우리 음악을 지키려는 발버둥이었다.

국악을 지키려 일찍 밖으로 눈을 돌렸으니 국악 한류의 원조격이었다. 1959년 일본 전국 순회공연에 이어 1960년 정부의 요청을 받아 한국 대표로 제자 강문자와 미국 세계무역박람회 에서 공연해 현지 방송에 소개됐다. 1961년엔 일본 동경에 국악학원을 세워 1979년까지 운영했다. 1962년엔 프랑스 파리민속대제전에 참여했다. 모두 25차례에 걸쳐 국악으로 세계를 누볐다. 해외 공연으로 우리 문화의 해외 보급과 전승을 위해 1962년 한국민속가무예술단을 창단했다.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다. “수많은 해외 공연을 다녀보면서 느낀 감정이지만, 우리 민족예술을 공연할 때마다 항상 위대함을 느낀다. 우리가 외래문화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보다 더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 자서전 소회는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어찌면 하지 않아도 나무랄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누구보다 우리 것을 아꼈기에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서구 음악의 홍수 속에 국민에게 ‘박귀회=가야금 명창’이란 확신과 국악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 준 것은 분명 그의 노력 덕분이었다.

그러면서도 국악 홀대와 천대, 국악인에 대한 소홀한 대접에 가슴 아파했다. 특히 말만 앞세우고 국악인을 이용만 할 뿐인 정부 행태에 대해서는 언론 기고를 통해 과감한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다. 그것은 진정 용기였다. 예술인이 정부와 각을 세우기는 어려운 시절이었다. “위정자들은 언제나 입버릇처럼 민족문화의 보호니, 육성이니 하면서 부르짖고 있으나 이는 말로만 그치고 실제로는 하나도 실행하는 것이 없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 하겠다.” 식지 않는 그의 국악 사랑은 우리 국악의 영원한 화수분이었다.



빈손으로 와서 많은 것 주고 빈손으로 가다

1955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민속예술학원을 차렸다. 그러나 학원 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국악을 전문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학교 설립에 나섰다. 학원을 판 돈에 기업인들에게 받은 기부금, 일본 교포가 보내 준 지원금을 모았다. 그리고 5년에 걸친 숱한 어려움을 딛고 드디어 1960년 5월, 꿈에 그리던 국악예술학교를 개교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자 용감하게 기업인들을 찾아갔던 일화는 그의 국악에 대한 열정을 그대로 보여 준다. “도와 주이소.” 삼성의 이병철 회장에겐 막무가내로 사정했다. 그렇게 사정해서 1,350만 원을 기부받았다. 어렵고 힘든 시절 쉽지 않은 행동이었다.

1989년에 학교를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길 때는 31년간 정들었던 운당여관을 팔아 26억 원을 보냈다. 국악인 거처와 제자 양성을 위해 사들여 여관으로 운영한 정든 집이었다. 과수원도 팔았다. 그는 국악인으로는 드물게 사업 수완이 좋아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이런 수완으로 모은 돈을 밑거름 삼아 1992년 12월 현대식 국악예술고등학교가 문을 열 수 있었다. 그의 기부는 멈추지 않았다. 죽기 한 달 전엔 살던 집을, 하루 전엔 가진 모든 현금을 학교에 내놓았다. 그의 국악에 대한 열정과 강인한 의지가 있었기에 국악사에 길이 남을 국악학교가 탄생한 것이다.

재산 기부 전 두 아들에게 다짐도 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하나도 없다. 지금 있는 재산은 모두 후진들을 위해 내놓을 작정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아들의 대답은 시원했다. “어머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희들은 어머님의 국악 사랑하는 마음이 천금보다 더 귀중한 유산일 뿐입니다.”

그는 재산보다 국악과 국악인을 남기려 했던 앞선 국악 교육가였다. 그래서 그는 옛말을 바꿔 썼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가 아니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예술인은 제자를 남긴다.” 그리고 제자를 자랑스러워하며 그들의 활동에 가슴 뿌듯해했다.

특히 그는 학교 설립과 함께 예능인의 인성이 바로 되길 원했다. “항상 사람 됨됨이가 바로 되어야 올바른 예술을 할 수 있다.” 운당여관에서 지낸 제자이자 양아들인 사물놀이 명인 김덕수는 그의 제자 사랑에 대한 기억을 글로 남겼다. “뛰어난 실력이 있어도 설 무대가 없어 소리 없이 사라져 간 선배들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려고 후배들을 매섭게 가르쳤다. 나는 사람이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다수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걸 수 있다는 걸 선생님을 통해 확인했다.”

그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많이 걸었다. 1960년대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 자꾸 사라지는 민요 채집에도 나섰다. “요즘 어린이들이 피아노 학원에 가면 제일 먼저 바이엘을 가르친다고 한다. 피아노 입문서인 바이엘처럼 민요는 국악의 입문서라는 것을 상기해 보자.” 민요를 국악의 뿌리라고 믿었다.

국악 창작이란 낯선 길도 열었다. 입으로만 이뤄지던 가르침이 너무 어렵고 불편해 육목을 각오로 1979년 우리 창과 가락을 양악의 오선보에 그려 넣는 모험을 했다. 그렇게 낸 가야금 병창곡집은 뒷날 교재로 쓰였고, 가야금 병창곡집을 내며 창작곡집을 만든 첫 인간문화제가 됐다.

서양악과 달리 우리 음악을 오선보에 옮기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었다. 없던 시절, 천대받던 국악을 옛날처럼 회초리로 가르칠 수는 없었다. 그는 아무도 알리지 않는 ‘자갈길로 수레를 끌고 갔다.’ 그 ‘수레의 한 바퀴는 가야금 병창이고, 다른 쪽 바퀴는 건학과 교육이며, 멀리 향하는 봉우리는 도화 만발한 국악의 꽃대궐’이 됐다. 그것은 한명희 서울시립대 교수의 지적처럼 “척박한 20세기를 땀 흘려 살아간 순례의 길, 곧 향사가 남긴 국악사의 족적이요 공훈”이었다.

정인렬



생각거리

명상 박귀희가 베푼 국악의 씨앗은 현재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 바람을 타고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가?

1960년대에 서구 음악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국악은 더 힘을 잃었다. 그때 박귀희는 해외에 국악과 판소리와 가야금을 알렸다. 그녀가 세운 예술학교 제자들이 지금 세계를 누비며 국악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 한류 바람은 이미 반세기 전에 박귀희가 뿌린 씨앗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그녀의 국악 해외 보급과 전승 노력은 21세기 한류 준비를 위한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박귀희의 자취를 찾아가는 길



용연사

명장 박귀희는 우리 국악의 대중화와 후학 양성에 생애를 바쳤다.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서 태어나 봉산동 외가에서 대구공립보통학교에 다녔다. 지금의 대구초등학교이다. 학교를 오가는 길에 기생들이 배우는 판소리를 귀동냥으로 익혔다. 그의 남은 발자취는 대구 용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16세에 조학진으로부터 적벽가를 배우며 첫 백일 공부를 한 곳이 바로 용연사이다. 명장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 바로 용연사가 아닐까. 19세에는 쌍계사에 머물며 유성준 명창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또 백일을 버텼고, 비로소 득음을 한다. 고즈넉한 쌍계사에서 타고난 재능에도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의 열정에 가슴 뭉클함이 전해진다. 1960년에는 전 재산을 털어 오늘날 국악예술고등학교의 전신인 국악예술학교를 세웠다.

박귀희의 고향 칠곡의 체험학습 추천 코스



다부동 전적기념관



송림사



가산산성



팔공산

다부동 전적기념관

팔공산과 황학산, 유학산 그리고 소학산으로 둘러싸인 다부동은 천생산성, 가산산성 등이 남아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6·25 당시에도 치열한 격전지였다. 그곳에 세워진 전적기념관을 둘러보며 끝까지 북에 대항하여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던 국군의 뜻을 깊이 새겨 보자.

가산산성

조선시대에 세운 가산산성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외침을 막기 위해 세운 성이다. 진남문에서 남포루 가산바위를 지나 유선대와 동문을 거쳐 진남문으로 돌아오는 10km 남짓 탐방둘레길이 있다.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역사문화를 체험하며 삼림욕까지 즐길 수 있는 일거양득의 탐방길이다.

송림사

진흥왕 5년에 창건한 송림사는 오랜 세월을 말해주는 대웅전 처마 아래 불화와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은 5층 전탑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산중산사가 아니라 평지가람이면서도 넘실한 기운을 간직하고 있다. 목조 석가여래삼존상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팔공산

팔공산은 대구 최고봉이다. 동화사에서 군위삼존석굴까지 이어지는 팔공산 순환도로는 봄이면 벚꽃이, 가을이면 단풍이 터널을 이룬다. 북지장사 가는 길, 한실골 가는 길, 부인사도보길, 평광동 왕건길, 구암마을 가는 길, 단산지 가는 길, 폭포골 가는 길, 수태지 계곡길 등 모두 8개의 팔공산 올레길의 다양한 표정도 인기 만점.